

# 양용은, 한국인 두번째 PGA 우승

## 최경주 이어 혼다클래식 제패...우승상금 100만달러 상금랭킹 9위

‘야생마’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혼다클래식을 제패했다. PGA 투어에서 고대하던 첫 우승이다.

양용은은 9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가든스 PGA내셔널 골프장 챔피언스코스(파70·7천158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버디 5개에 보기 3개를 곁들이며 2타를 줄여 합계 9언더파 271타로 존 톨린스(미국·9언더파 272타)의 추격을 1타차로 따돌렸다.

2006년 유럽프로골프투어 HSBC챔피언스에서 타이거 우즈를 꺾고 정상에 오른 이후 28개월만에 맞본 우승. 지난해 부진으로 캘리포니아를 시험을 다시 봐야 했던 양용은은 이번 대회 2라운드부터 선두 자리를 지켜 PGA 투어 첫 우승과 함께 최경주(39·나이키골프)에 이어 두번째 한국인 우승자로 이름을 올렸다. 우승 상금 100만8천달러를 받아 든 양용은은 시즌

상금 랭킹 9위(110만5천771달러)로 뛰어 오른 것을 물론 앞으로 2011년까지 2년 동안 투어카드와 대기자 신분에서 벗어나 대회를 골라 출전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됐다.

다음 주 열리는 CA챔피언십과 4월 마스터스, 5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출전 자격을 얻게 됐고 상금랭킹과 세계랭킹 상위 선수에게 주어지는 다른 메이저 대회 출전 기회도 가까워졌다. 또 페덱스컵 포인트 500점을 보며 9위(579점)로 뛰어올라 가을에 열리는 플레이오프 진출에도 희망을 밝혔다.

캘리포니아를 성적에 그치지 좋지 않아 이번 대회에도 대기 선수가 있다가 출전 기회를 얻은 양용은은 모처럼 찾아온 우승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다.

3.4. 5번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 기선을 제압한 양용은은 6번홀(파4)에서 티샷을 페어웨이 벙커에 빠뜨린 뒤 3번째 샷만에 볼을 그린 위에 올리는 바람에 1

타를 잃었다. 하지만 양용은은 8번홀(파4)에서 6m짜리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만회했고 양용은의 거침없는 기세에 추격자들은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때까지 3타를 줄여 2타차로 따라 붙은 톨린스만이 유일한 경쟁자였지만 양용은은 12번홀(파4)에서 짜릿한 버디 퍼트를 홀에 집어넣어 3타차로 벌렸다.

양용은은 15번홀(파3)에서 티샷을 그린 뒤 벙커에 빠뜨려 1타를 잃었지만 앞서 경기한 톨린스도 이 홀에서 보기를 적어내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톨린스가 18번홀(파5)에서 버디로 흠아웃하고 양용은은 17번홀(파3)에서 다시 1타를 잃어 1타차로 쫓기면서 우승 전선에 잠시 머그물이 끼었다.

마지막 홀 티잉 그라운드에 올라선 양용은은 티샷을 페어웨이 한 가운데로 잘 보냈고 세번째 샷을 안전하게 그린 위에 올리며 머그물을 걸어냈다. /연합뉴스

## “마지막 4개홀 내 골프 인생보다 길었다”

“마지막 남은 4개홀이 지금까지 내 골프 인생보다 긴 것 같았다”

2006년 11월 유럽프로골프 HSBC 챔피언스에서 타이거 우즈(미국)를 꺾고 스타 플레이어로 떠올랐던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이 28개월 만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혼다 클래식에서 우승을 앞두고 느낀 감정을 이보다 잘 표현할 수 있을까.

9일 혼다클래식 4라운드에서 1타차로 쫓기던 양용은은 18번홀(파5)에서 홀까지 두번 거리의 파퍼트를 남겼을 때 아무런 정신이 없었다고 털어 놓았다.

다음은 전화 통화와 공식 기자회견 일문일담. -정말 오랜만에 우승을 했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그동안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부담이 컸다. 그런데도 나를 믿고 후원해준 테일러메이드와 르 꼬르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고생한 가족들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2006년 타이거를 꺾고 우승한 뒤 지내온 날들을 얘기해 준다면.

▲그 대회에서 우승한 뒤 마스터스에도 나가는 등 내 꿈을 이룬 것 같았다. 하지만 목표를 이루고 난 뒤

에는 골프에 대한 열정이 다소 식었고 샷이 예전같지 않았다.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힘들었다.

-오늘 경기는 어떠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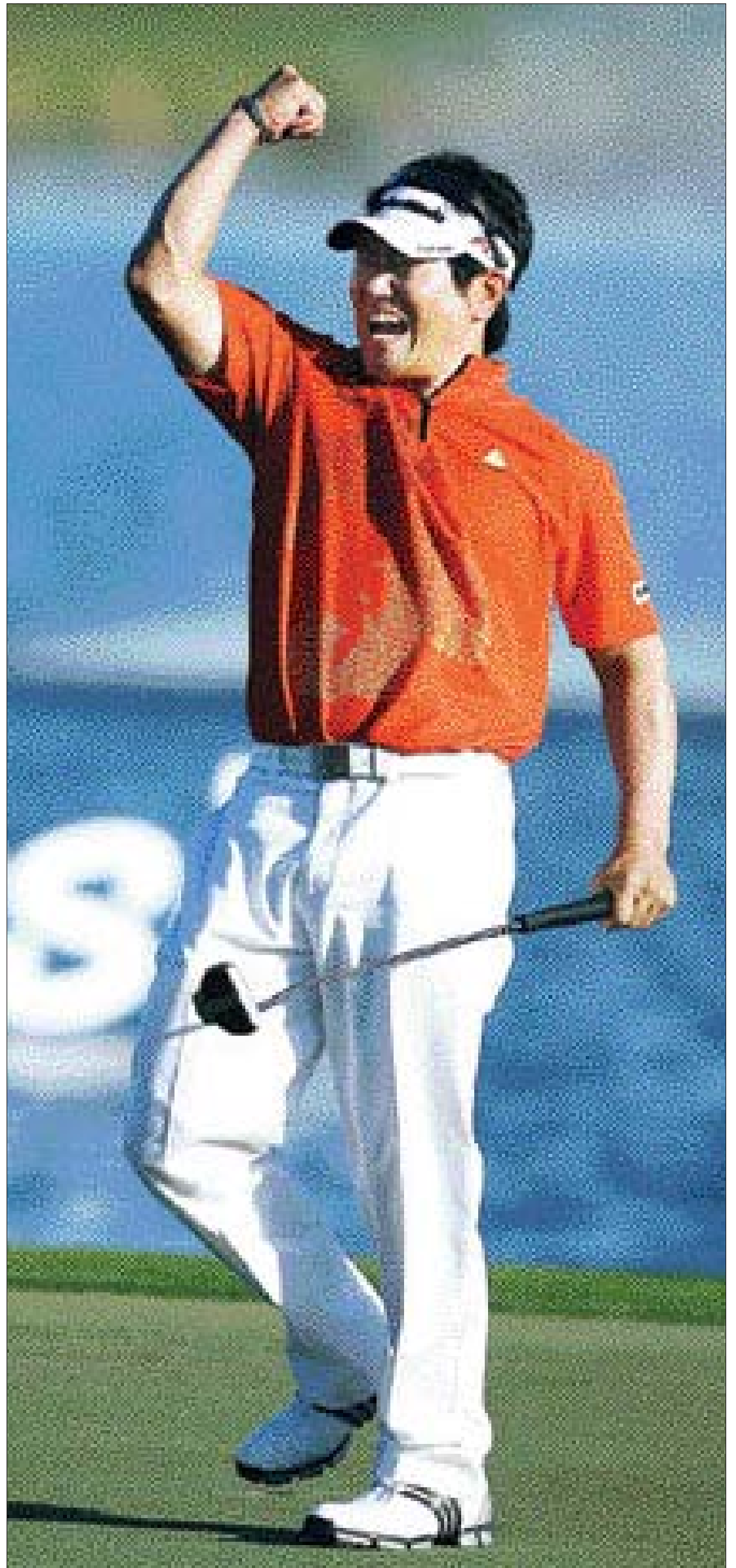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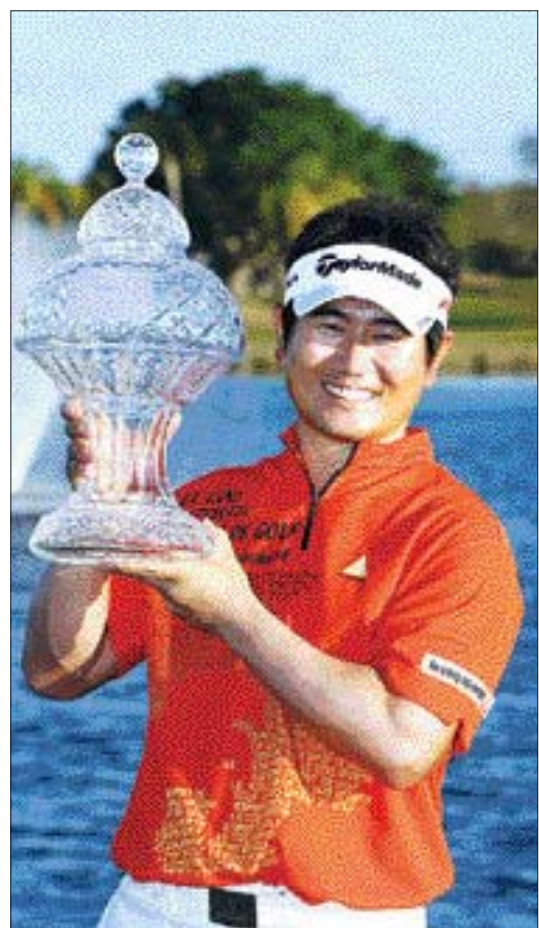
▲마지막 남은 4개홀이 내 골프 인생보다 더 길었던 것 같았다. 마지막 라운드를 하기 전 인터넷을 통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신지에 선수가 우승하고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한국이 중국을 꺾고 본선행을 확정지었다는 기사를 읽었다. ‘나는 앞서고 있고 더 잘 할 수 있다’고 나 자신에게 말했다.

-마지막 18번홀 상황은?

▲세번째 샷을 생각보다 왼쪽으로 쳤다. 마음에 들지 않아 나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렸다. (우승하기 위해서) 2퍼트를 해야 했는데 너무 긴장했다. 잔디는 워터 헤어드 쪽으로 누웠고 내리막 퍼트였다. 필요한 게 뭐지? 얼마나 세게 쳐야 하지? 많은 생각을 했다. 결국 쉬운 퍼트가 아니었지만 결정을 내렸고 실행에 옮겼다.

-99만달러의 상금을 받았는데 어디다 쓸지 결정했나.

▲아직 아무런 계획도 없다. /연합뉴스



양용은이 9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가든스 PGA내셔널 골프장 챔피언스코스(파70·7천158야드)에서 열린 혼다클래식 마지막 라운드에서 우승을 확정지은 뒤 손을 들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경주-양용은 ‘닭은꼴 잡초’ 고교때 골프 시작 PGA 진출 과정도 비슷

9일(한국시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혼다클래식에서 우승을 차지한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은 여러모로 ‘코리안 탱크’ 최경주(39·나이키골프)와 비슷한 점이 많다.

먼저 뒤늦게 골프에 뛰어들어 점이 똑같다. 최경주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골프를 시작했고 양용은도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우연한 기회에 연습장에서 일하면서 골프와 인연을 맺었다.

PGA 투어에 서기까지 과정도 흡사하다. 한국과 일

본 무대를 거쳐 미국 문을 두드린 최경주와 양용은은 나란히 캘리포니아를 두 번이나 거쳐야 했다. 1999년 Q스쿨에서 공동 35위로 가까스로 투어 카드를 따낸 최경주는 2000년 시즌 상금 랭킹 134위에 그쳐 2000년에 다시 캘리포니아를 통과했다. 양용은은 무려 4년 연속 Q스쿨에 응시해야 했다. 2005년과 2006년에는 탈락했고 2007년 ‘2진3기’로 Q스쿨을 통과했지만 성적 부진으로 2008년 예선으로 밀려난 끝에 2009년에 다시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닭은꼴” 둘은 남다른 친분도 유지하고 있다. 최경주는 2006년 11월 양용은이 유럽투어 HSBC 대회를 우승한 직후 인터뷰에서 “후배인 양용은이 늦게 시작했으면서 차려차례 발판을 넓혀가는 면에서 나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다. 특히 가장적이라는 점도 비슷하다”라며 “이런 주변의 힘을 바탕으로 개인관리를 잘 하면서 실력을 잘 발휘하면 미국에서도 충분히 우승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라고 일찌감치 양용은의 성공 가능성을 내다보기도 했다. /연합뉴스

## “제 경기서 힘 얻으셨다니...양용은 선배님 고마워요”



### 신지에 선수 귀국

“양용은 선배님이 저를 생각하고 경기를 하셨다니 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9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혼다클래식에서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이 생애 처음 우승하면서 한국골프계에 걸경사가 난 날 한국여자골프의 지존 신지에(21·미래에셋)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8일 싱가포르에서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HSBC위민스챔피언스에서 우승하고 금의환향한 신지에에는 자신의 역전승에서 힘을 얻었다는 양용은의 기자회견 얘기를 듣고 크게 기뻐했다.

양용은은 이날 PGA 투어 기자회견에서 “마지막 라운드에서 긴장을 했는데 신지에의 역전 우승 소식을 듣고 힘을 냈다”고 말했다.

이 말을 취재진으로부터 전해 들은 신지에에는 “제가 처음 우승할 때는 제 경기만 생각했었다. 선배님이 제 경기에서 힘을 얻었다니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즌 개막전에서 첫 탈락하는 고배를 마셨던 신지에에는 “그 때 배울 것은 모두 배웠다. 당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제 그 약속을 지켜서 기

쁘다”고 덧붙였다.

HSBC 마지막 라운드에서 대역전극을 펼쳤던 신지에에는 “사실 3라운드 때보다 샷은 좋지 않았다. 첫번째 홀에서 버디를 잡고 나서 경기가 잘 풀렸을 뿐”이라고 전날의 기억을 되살렸다.

신지에에는 “그날 6언더파를 쳤지만 1언더파 정도만 친 것 같다. 더 많은 버디를 잡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했다.

짧은 퍼트가 잘 들어가 우승할 수 있었다는 신지에에는 “그 때 같은 조였던 (김)미현이 언니가 ‘너 왜 그렇게 퍼팅을 잘하니’라고 했고 (박)세리 언니는 ‘너 정도 퍼팅이면 나도 우승했겠다’라고 했다”며 밝게 웃었다.

18번홀에서 버디 퍼트를 너무 짧게 쳐 파로 흠아웃하고 나오는데 톨라 크리머(미국)가 “왜 그렇게 짧게 쳤나”며 오히려 걱정을 해줬다고.

다음 주 멕시코에서 열리는 마스터스 클래식 대회를 앞둔 신지에에는 당분간 한국에 머물면서 다시 연습에 집중할 뒤 이번 주말에 출국할 예정이다.

한편 신지에 경기를 지켜보느라 겁게 탄 얼굴로 함께 귀국한 아버지 신재석(49)씨는 “피부 보다는 내 마음이 더 겁게 났다”며 그동안 마음 고생을 털어놓기도 했다. /연합뉴스

## 이호석 2관왕...개인종합 우승 세계쇼트트랙선수권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 ‘만항’ 이호석(23·고양시청)이 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에서 남자부 개인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이호석은 9일(한국시간) 새벽 오스트리아 빈에서 치러진 대회 남자부 1,000m 결승에서 아폴로 안톤 오노(미국·1분33초262)와 치열한 접전을 펼친 끝에 1분33초060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호석은 연이어 치러진 3,000m 슈퍼파이널에도 출전해 4분50초114로 미국의 신에 J.R.셀스키(4분48초444)에 이어 은메달을 추가했다.

이로써 이호석은 대회 첫날 1,500m 우승을 포함해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목에 걸면서 총점 89점으로 셀스키(65점)를 제치고 자신의 첫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종합 우승의 영광을 맛봤다.

남자 대표팀 마내 광운기(20·연세대)는 은메달 2개를 획득, 총점 47점으로 캐나다의 찰스 해밀린과 동점을 이뤘지만 종목별 예선성적에서 뒤지면서 어렵게 4위에 그쳤다. 지난해 개인종합 우승을 차지했던 오노는 총점 37점으로 5위로 밀렸다. /연합뉴스



이호석(23·고양시청)이 9일(한국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 쇼트트랙선수권 남자부 1,000m 결승에서 미국의 아폴로 안톤 오노를 제치고 금메달을 결정지은 후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부에서는 ‘만인나’ 김민정(24·전북도청)이 1,000m 결승에서 중국의 에이스 왕멍과 주양에 이어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주양이 코스츠크(진로방해)로 실격되면서 행운의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여자 대표팀은 이날 3,000m 릴레이 결승에서 중국에 이어 은메달을 따냈다. /연합뉴스